

## 독도, 100일의 기록

접 수 번 호	중등4
학 교 명	영선중학교
동아리(팀)명	동해랑 독도랑 우리랑

## 1. 우리 동아리(팀) 소개하기

### ○ 동아리(팀)명 소개

우리 학교는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교내에 인문사회 영재학급을 승인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영재 동아리는 독서·논술 뿐 아니라 사회 및 역사의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토론 활동과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살아있는 공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 표기 및 독도에 관심이 많아 독도 관련 계기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마다 다양한 독도 관련 대회(독도 바로알기 대회, 독도 글짓기 대회, 독도 포스터 공모전 등)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운영하는 「독도 지킴이 학교」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독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일부 학생들에게 편중되어 있고, 그 내용 또한 이론적 접근에 한정되어 있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처음으로 『독도 체험 발표 대회』가 신설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이 대회를 통해 독도 사랑의 실제적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2017학년도 인문사회 영재학급과 독도 지킴이학교 동아리 학생 중 그 뜻을 같이하는 5명의 소녀들이 모여 동해와 독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는 의미를 부여하여 '동해랑 독도랑 우리랑'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 이재환: 독도는 우리의 자존심! 독도를 마케팅 하여 세상에 외쳐보자!
- 문남경: 독도 100일의 기적, 우리가 만들어내겠습니다.
- 장한비: 독도를 알고, 독도를 알리자!
- 이채은: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의 상징, 독도는 우리가 지킨다!
- 이서현: 우리 것은 우리가 지키자!
- 정다혜: 우리가 사랑한 독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실질적인 독도 수호 의지를 행동으로 실천하여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일반 학생들에게도 연중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동아리(팀) 구성원 ※ 동아리(팀) 구성원 변경 시 변경 전·후 명시하여 표기할 것

순번	성명	학년	동아리(팀) 내 역할
1	이채은	3	반장
2	문남경	3	부반장
3	이서현	3	홍보부장
4	장한비	3	기록
5	정다혜	3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2. 독도체험 활동 소개하기

○ 활동 주제 : 독도를 마케팅(marketing)하다.

- 주제 선정 이유

장소 마케팅(Place Marketing)이란 지방 자치 단체가 주체가 되어 장소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기업의 마케팅 기법이나 전략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장소의 이미지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관광객이나 투자자를 유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향상하고,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정체성·소속감·자긍심 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 동아리는 기업에서 활용하는 이러한 장소 마케팅의 사전적 의미를 뛰어넘어 전 세계인에게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독도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따라서 동아리원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독도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여 독도를 알리고자 활동 주제로 선정하였다.

○ 활동 기간 : 2018. 5. 2 ~ 2018. 8. 9

○ 추진 방법 : 동아리 구성원이 중심이 되어 독도 체험활동을 하고 나아가 많은 학생들에게 독도를 알리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

## ○ 활동 내용(자유롭게 기재하시오.)

### ○ 활동 1 : 동아리 출범식 (2018. 5. 2)



☞ 2018. 5. 2 우리는 사회과실에 모여 독도 사랑 실천에 대한 포부를 다지며 100일 동안의 활동 계획을 세웠다. 먼저 동아리 명을 정하고 반장을 선정하였다. 평소 활발한 성격으로 리더십을 인정받은 이채은 학생이 모두의 추대로 반장으로 임명되었고,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정하였다.

### ○ 활동 2: 독도 수업의 날 (2018. 5.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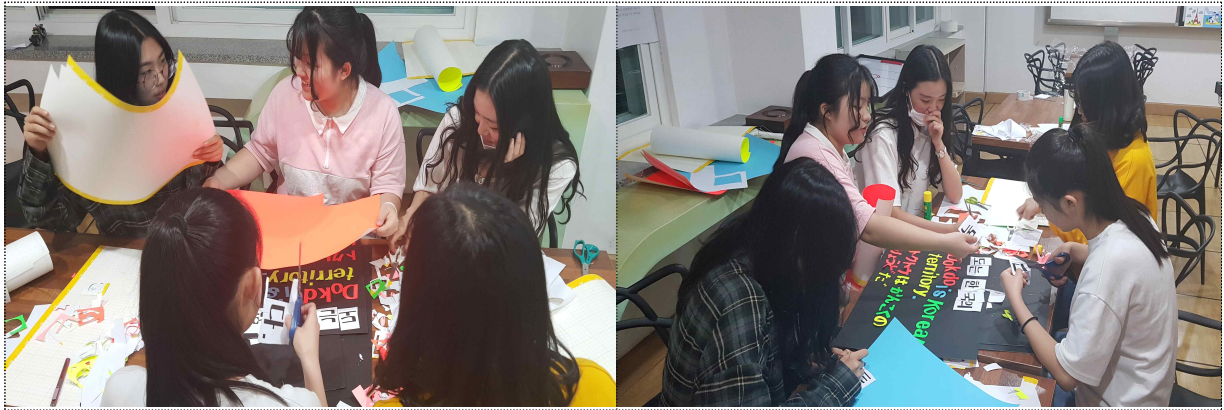


☞ 학부모님을 모시고 독도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독도가 왜 우리 영토인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인 근거를 이해하고 '독도는 우리 땅' 6행시 짓기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이유를 일본 정부에 대해 논리적으로 발표하는 활동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 동아리원인 **문남경, 장한비** 학생은 학부모님과 학생들 앞에서 그 동안 열심히 준비한 자신의 논리를 침착하게 발표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 ○ 활동 3: 독도 체험관 견학 및 서울 홍보활동 (2018. 5. 26)

☞ 5월 26일 우리는 서울 독도 체험관 견학을 하였다. 그리고 서울의 랜드마크에 돌아다니며 우리 동아리와 독도를 홍보하는 활동을 가졌다. 미세먼지가 많아 목이 아팠지만 보람찬 활동이었다. 다음 글은 **장한비** 학생의 소감문이다.

어느 학교에나 동아리가 있다. 수학 동아리, 댄스 동아리, 독서 동아리 등, 하지만 우리 영선중학교에는 조금 특별한 동아리가 있다. 바로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를 알리고, 독도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며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율동아리 '**독도랑 동해랑 우리랑**'이다.



독도는 신라장군 이사부에 의해 대한민국의 정식 영토가 된 이후로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록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의 역사적 기록까지도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하지만 러·일 전쟁 중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 불법으로 편입한 이후 줄곧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토당토않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역사 왜곡을 담은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이행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독도가 왜 한국의 영토인지 정확한 근거를 모르고 감정적으로만 주장 하는 등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도 아쉬웠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는 우리 학교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에서 "독도가 우리 땅인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 홍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각종 문구로 채워진 피켓을 만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며칠 뒤인 5월 26일 토요일, 해가 뜬지 얼마 되지 않은 새벽 6시 20분에 우리 동아리는 부푼 마음을 안고 버스를 타고 3시간 30분이라는 긴 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다. '과연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많이 긴장되었지만 막상 서울에 도착하니 자신감과 설렘이 우리를 감쌌다. 지하철을 타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독도 체험관이였다. 친절하고 유쾌한 해설자 선생님과 함께 독도의 지질학적 특징, 생물, 역사, 독도가 한국의 땅인 근거에 대해 함께 대화해보고 독도 관련 4D 영상을 보고, 독도 VR을 체험하기도 하였다. 그 중에도 특히 독도 VR을 하면서 가기 힘든 독도를 직접 가본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인상적이었다.

쉴 틈 없이 움직여서 도착한 곳은 촛불 집회로 유명한 대한민국의 심장 광화문이었다. 광화문을 찾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동아리와 독도가 왜 우리 영토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왠지 모를 뿌듯함과 성취감이 들었다. 또한 한국인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님의 동상 앞에서 직접 만든 독도 피켓을 들고 독도를 알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광화문 근처에서 한참을 활동한 후 근처인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에 들어가 우리 나라의 근현대사와 독도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본 대사관으로 향하였다. 하지만 일본 대사관은 아쉽게도 공사 중이었고, 임시 일본 대사관으로 향하였으나 외교관계 때문인지 관계자의 제지로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아쉬웠지만 일본 대사관 앞에서 했던 독도 홍보 활동과 일본과의 또 다른 갈등인 '일본군 위안부'를 공유하며 행사장 앞에서 판매하는 배지를 구매하여 도움을 준 것에 의의를 두고 위안을 삼았다.



아쉬운 발걸음을 이끌고 광화문의 핫-플레이스인 교보문고에 간 우리는 독도에 관한 서적도 같이 찾아보고 직원 분들에게도 우리 동아리를 알렸다. 나오는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독도 피켓을 들고 사진 촬영도 했다. 또한 길에서 만난 외국인들에게 서툰 영어로 독도에 대해 알리고 양해를 구해 같이 사진도 찍었다. 지하철 2호선 안에서는 남경이가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를 보던 아주머니 두 분이 칭찬을 해주셨다. 고되고 힘들었던 하루를 보상받은 기분이었다.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는 우리가 했던 활동들을 정리해서 학교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했다. 많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심지어 교장 선생님마저도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셨다.

더운 여름, 서울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는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고, 타는 목마름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우리의 이런 활동이 독도를 지켜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는 생각에 우리 스스로 뿌듯하였고 기뻐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도움으로 우리는 다친 사람 없이 무사히 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독도를 알려야겠다. 우리 주권의 상징, 독도!! 우리 동아리 '독도랑 동해랑 우리랑'이 지켜낼 것이다.

#### ○ 활동 4: 독도 벽화 그리기 (2018. 6. 9)

☞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학교 중앙 계단에 독도 관련 벽화를 그리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온 지 1달 만에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독도 벽화 작업을 하였다. 벽화 하나로 학교 분위기가 화사해졌고 거기다 덤으로 독도와 우리 동아리를 소개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 다음 글은 문남경 학생의 소감문이다.

세상에는 하고 싶은 일과 하고나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나에게서는 독도 동아리 '동해랑 독도랑 우리랑' 활동이 하고 싶은 일이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다. 아마도 우리 동아리 부원 모두가 그럴 것 이다. 특별히 6월 9일에 실시했던 벽화 그리기 활동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6월 9일 토요일, 우리 동아리 5명 모두가 주말을 반납하고 독도 벽화를 그리기 위해 학교에 모였다. 벽화 그리기는 평소에 쉽게 할 수 없는 색다른 활동이었기에 설레기도 하였고 '만약 나 때문에 벽화를 망치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들기도 하였다. 더욱이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그려 색칠하는 벽화라서 그런지 긴장감이 배가 되는 듯 했다. 우리는 사전에 독도와 독도의 각종 동식물들, 그리고 독도 관련 인물까지 다양한 내용과 의미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여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선정했었고 이 날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모두 펜을 하나씩 들고 벽에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벽화를 그리는 도중에 체력이 고갈되고 온 몸이 물감으로 도배되기도 하였으나 그럴 때마다 부원들은 서로를 응원하고 노래와 함께 흥을 돋우며 차근차근 거대한 벽을 채워나갔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장장 7시간을 물감 속에서 벽화를 완성시켰다. 전문가도 아니고 미술에 엄청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한 끝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다. 단순히 그림이 예뻐서 보기 좋다는 생각보다는 우리의 노력과 독도 수호의지가 엿보이는 세상에 하나뿐인 그림이어서 더욱 멋지게 보였다. 모든 작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너무 피곤했는지 바로 잠이 들어버렸다.

다음 주 월요일 학교에 돌아오자 선생님, 학생들은 우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많이 힘든 작업이었지만 그 뿌듯함은 고된 작업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값어치 있었다. 우리의 바람처럼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독도 벽화를 보며 한번쯤은 독도 생각을 해주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매우 의미 있는 활동으로 기억될 것 같다.

## ○ 활동 5: 독도 계단 띠 작성 (2018. 6. 14)

☞ 독도 벽화에 이어 독도 계단 띠를 작성 하였다. 계단을 오를 때 마다 독도의 역사를 한번 더 살펴볼 수 있어서 학습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다음 글은 **문남경** 학생의 소감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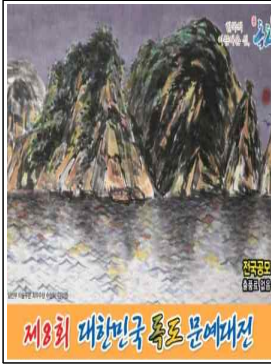
벽화를 그리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6월 14일 목요일 자기주도 학습시간, 나는 꼭 빠져있던 소설책을 덮어둔 채로 벽화 옆에 위치한 학교의 계단으로 향했다. 독도 계단 띠 붙이기 활동을 위함이었는데 독도의 지리와 역사적 사실을 더욱 많은 학생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학생들의 이동이 많은 중앙 계단에 독도에 관한 정보를 게시 하는 게 어때?' 하며 고안해 낸 방법이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단 띠 디자인을 우리 학교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주문했고, 우편으로 도착한 독도 계단 띠들과 접착제, 줄자, 50cm 자, 싸인 펜을 준비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짧은 활동 끝에 완성된 계단을 보니 옆 벽화와 어우러져 몇 배로 아름다워 보였고 독도 동아리원으로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계단 띠에는 독도의 역사 뿐만 아니라 우리 동아리 부원들의 이름도 새겼다.



사람들이 이 공간을 지나칠 때마다 잠시나마 독도를 마음에 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말랑해지고는 한다. 계단 띠 작업은 동아리 부원들의 결속력을 더욱 강하게 했고 후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끔 다짐하게 해주는 활동이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더욱 보람 있고 적극적인 동아리 활동을 이루어 나가고 싶다.

## ○ 활동 6: 독도 문예대전 & 해양 영토 글짓기 대회 (2018. 6. 18 ~ 6. 22)

☞ 우리 학교는 해마다 교내 독도 글짓기 대회를 실시한다. 올해는 동아리 원 모두가 평소보다 진지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 독도 글짓기를 작성하였다. 또한 동해 표기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해양 영토 글짓기도 함께 작성하였다. 감동 있는 글을 쓴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의 활동과 독도 사랑의 마음을 접목시키면 된다는 생각에 정성을 다하여 글짓기 대회에 참가하였다. 평범한 글보다는 우리만의 색깔과 생각을 담은 참신한 글을 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6월 22일 마감 시간을 아슬아슬하게 지켜가며 5명 모두 출품을 완료하였다.



작품 제출 후 두 대회에서 모두(대한민국 독도 문예대전, 해양영토 글짓기 대회) 우리 동아리 학생들이 수상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지도교사로서 별로 한 것이 없는데도 아이들이 열심히 해준 결과 지도교사상까지 수상하게 되었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정말 기쁜 순간이었다.

## ○ 활동 7: 교내 독도사랑 캠페인 (2018. 6. 20)

☞ 다음 글은 이채은 학생의 소감문이다.

싱그러운 봄기운이 활짝 펴 내 마음까지 따스한 물결이 전달된 게 잊그제 같은데, 벌써 휴대용 선풍기 없이는 단 1분도 버티기 힘든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다. 그저 평범한 학생인 우리들이 선생님의 추천으로 '동해랑 독도랑 우리랑' 동아리 원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동해와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한지도 벌써 2달째로 접어든다. 서울 독도 홍보활동, 독도 벽화와 독도 계단 띠 붙이기 활동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여러 시간 고민한 끝에 전교생이 독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우리는 선생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캠페인을 준비하였다.



우선 블랙보드에 독도를 알릴 수 있는 내용과,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을 형형색색의 마카로 적어 내려갔고, 교실 및 교내에 게시할 홍보용 포스터도 만들었다. 비록 서툰 솜씨여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 손으로 만들어 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정성으로 만든 포스터는 각 학급과 교내 게시판에 붙였고, 그렇게 우리는 다음 날을 기대하며 캠페인 연습을 하였다.

6월 20일, 아침부터 분주한 마음으로 캠페인 활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친구들의 도움으로 책상과 의자를 옮기고, 블랙보드를 옮기고, 독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준 학생들에게 선물해줄 맛있는 쿠키와 예쁜 독도 지우개, 독도 연필을 준비했다. 단순한 선물이 아닌 독도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선물이어서 의미가 깊었다. 또한 독도 연필과 지우개는 수익금의 일부가 독도 후원 기금으로 사용된다고 하니 더욱 뿌듯했다. 학생들이 학용품 사용하면서 독도에 대해 한 번쯤은 더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드디어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많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 심지어는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까지 참여해 주셨고, 좋은 활동을 한다면서 우리를 격려해주셨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학교 방송부까지 캠페인 홍보를 방송으로 도와줘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몇몇 친구들과 교장선생님은 독도에 관한 인터뷰도 흔쾌히 응해주셨고, 또 몇몇 친구들은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는 같이 참여해주었다. 고맙게도 더욱 것 같다면서 우리에게 음료수를 건네는 친구도 있었다.



날씨가 더워서 땀을 뻘뻘 흘렸던 우리 동아리 원들은 놀랍게도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안 그 누구도 힘들다고 투정하지 않았다. 나는 진지하게 독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주는 우리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고마웠고, 또한 자랑스러웠다. 우리 동아리 원 모두가 나와 같은 생각인 것 같았다. 우리는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활동을 진행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적어주신 희망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어보니 덩달아 나가지도 기운이 솟아나는 기분이었다.

이번 활동은 나에게도, 우리 동아리 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도 보람차고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독도에게 희망 메시지를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땅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면서, 이 소감문을 마무리로 이번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나를 비롯한 우리 동아리 '동해랑 독도랑 우리랑'은 전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독도를 알리고, 또 지켜내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 ○ 활동 8: 물병 만들기 (2018. 6. 27)

☞ 다음 글은 **이채은** 학생의 소감문이다.

각자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6월이 다 지나갈 무렵 우리 동아리는 또 한 번의 만남을 가졌다. 우리 땅 독도에 관련해 굿즈를 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을 포함해 선생님들까지도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물병으로 제작하는 것을 추천해 주셨다. 우리 다섯 명은 그렇게 직접 물병에 새길 독도 관련 내용을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처음이다 보니 막막하고 어려웠지만, 예쁘고 화려한 디자인으로 만들기보다는 그 물병에 우리가 독도에 관해 어떤 내용을 담아내고 싶은지 생각해보니 한층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왔다. 우



리는 이미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는 여러 디자인들을 인터넷에 찾아보고, 여러 이미지를 참고해 우리만의 독도 물병을 디자인했다. 우선 독도를 상단에 표시하고 주변에 갈매기를 그렸고, 동쪽 끝의 상징인 해를 그려넣었다. 그 밑에는 우리 동아리 이름 '동해랑 독도랑 우리랑'이라는 문구를 넣고, 세로로 'DOKDO' 문구를 추가했다. 반 친구의 도움으로 예쁜 폰트를 다운받아 문구에 적용하니 한층 더 예뻐 보였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활동한 시기, Since 2018을 동아리

명 밑에 적어내니 꽤 그럴싸한 최종 디자인이 나왔다. 여러 번 생각하고 여러 번 수정한 작품은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그려낸 만큼 만족스러웠다. 며칠 후 우리는 우리가 디자인해 주문한 독도 물병을 실제로 받아 볼 수 있었다. 깔끔하게 제작된 독도 물병은 우리가 디자인한 것과 똑같았고, 실물로 받아보니 더 예뻐다.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학생들에게 독도 물병을 나누어주는 일이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물병을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니 독도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는 것 같았다. 다른 활동들보다 독도물병을 나누어 준 활동이 친구들에게도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다. 우리는 정성스레 만든 물병을 친구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물병 바닥에 학번을 써서 나누어 주었고, 그렇게 나누어준 물병을 친구들이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니 뿌듯했고, 보람찼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독도 물병을 사용하면서 한 번 더 우리 땅 독도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 ○ 활동 9: 독도 골든벨 (2018. 7. 12)

☞ 다음 글은 이서현 학생의 소감문이다.

숨 가쁘게 달려온 1학기도 어느새 2차 고사까지 끝났고 한 학기를 되돌아보니 열심히 공부도 하며 친구들과 장난도 치던 모습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독도 동아리인 '동해랑 독도랑 우리랑'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다. 그 중 '독도 골든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우리 동아리 부원들은 독도 골든벨을 주최하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아 노력했다. 먼저 장소와 참여인원에 대해 토의하였고, 독도에 관련된 책자를 찾아 학생들에게 배부하였다. 그 후 우리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나누어준 책자 및 사회·역사 교과서를 연신 들여다보았다. 40문제 출제를 목표로 쉬운 문제부터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만 맞출 수 있는 문제까지 다양한 난이도로 출제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출제한 문제를 PPT 자료로 만드느라 힘이 들었지만 5명의 부원이 서로를 북돋아 주어서 웃으며 마무리 할 수 있었다.

7월 12일 목요일, 독도 골든벨이 열리는 날이 되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며 너무 고마웠고, 그 친구들에게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응원했다. 나는 사회자를 맡았던지라 처음에는 긴장하였지만, 시작한 후 친구들의 열성적인 환호에 문제 출제를 맡은 채은이와 함께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 남경이와 한비, 다혜는 친구들에게 화이트보드와 보드마카를

나누어주고 행사 보조 및 다른 친구의 답을 베끼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독도 골든벨을 진행하면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 참 멋있었고, 고마웠다.



독도 골든벨은 많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인 만큼 우리 독도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오늘 이후로 나뿐만 아니라 영선중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독도는 우리의 영토임을 마음속에 더욱 단단히 새길 것이다. 또한 우리 독도를 지키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실천할 것이다.

## ○ 활동 10: 심벌마크 그리기 & 글라스 페인팅 (2018. 7. 13~ 7. 17)

☞ 다음 글은 정다혜 학생의 소감문이다.

심벌 마크란 일정한 목적을 강조하여 인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해 제정하는 마크를 말한다. 선생님께서는 심벌 마크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심벌마크 예시를 보여주셨다. 또한 심벌 마크 작성 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하는지도 상세히 설명해주셨다. 학생들은 그 동안 수업시간에 배우고 공부했던 독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 개성 있게 독도 심벌마크를 작성하였다. 나 또한 어떤 내용으로 작성할지 한참을 고민했다. 그렇게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벌 마크 중 우리는 열띤 회의 끝에 우수작품 12개를 뽑았다. 그리고 선정된 작품을 우드락에 부착하고 많은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중앙현관 앞에 게시하였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행사는 진행되었고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1인당 3개씩 스티커를 배부하고 마음에 드는 작품에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좋은 작품이 많았지만 치열한 경쟁 끝에 갱이 갈매기를 모델로 그린 작품과 독도와 해를 그린 작품이 1, 2위로 선정되

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선정된 2작품을 현관 유리에 그리는 '글라스 페인팅' 작업에 돌입했다. 특별히 작품의 주인공 친구들을 섭외하여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색칠을 했다. 완성된 심볼 마크를 보고 있으니 마치 우리가 예술가가 된 기분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독도를 통해 전교생이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만큼 독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현관을 지나갈 때마다 독도 수호의지를 가슴에 품을 수 있어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기억될 것이다.

### ○ 활동 11: 교내 학술대회 발표 (2018. 7. 18)

☞ 7월에 열린 교내 학술대회에서 동아리 반장인 **이채은** 학생이 우리 동아리와 동아리의 활동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았다. 발표 내용 중 "우리 학교는 독도에 미쳐있을 만큼 독도와 사랑에 빠져있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동아리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활동하는 모습에 교사로서 무한한 감동과 감사함을 느꼈다.



### ○ 활동 12: 동아리 평가회 (2018. 8. 9)



뜨거운 여름방학 중 100일의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학교에 모였다. 비록 공식적인 활동은 여기서 끝났지만 우리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기에 순수했고 열정으로 가득 채워졌다. 독도 체험활동은 우리를 독도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다.

우리의 100일은 그렇게도 찬란하고 또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활동 보고서	보고서	'독도, 100일의 기록'을 주제로 한 독도체험 발표대회 보고서
2	독도 동아리(팀) 활동 요약서	보고서	동아리 활동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요약하였음.
3	활동 영상물	동영상	<a href="https://youtu.be/pkGA3047DNg">https://youtu.be/pkGA3047DNg</a>

## 3. 성과 및 향후 계획

### ○ 활동 성과

- 독도는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임을 알게 되었고, 독도를 지켜야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음.
-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 세부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진심으로 살아있는 독도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음.
- 동아리 학생들을 시작으로, 전교생이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교사 및 학부모님의 응원이 함께하여 학교 전체가 '독도'라는 주제로 학교가 통합하게 되었음.

### ○ 향후 계획

- 독도 동아리를 정규 동아리로 편성하여 지속적인 독도 사랑을 실천해나가기
- 매해 학기 별로 동아리 성과 발표회 실시
- 지역 학교와 연계하여 독도 동아리 운영하기

## 4. 독도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 (팀)원	느 낀 점
이채은	동아리를 만들었던 시기가 5월이었는데, 벌써 10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 지으며 그간의 활동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하고 있으니 여러 감정이 겹친다. 기억을 더듬어 찬찬히 우리 동아리의 첫 만남을 떠올려보니 그때 다졌던 힘찬 파이팅이 우리가 성공리에 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다.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을 보내던 와중에 만든 '동해랑 독도랑 우리랑' 동아리는 작지만 특별한 동아리였고, 나는 이 특별한 동아리의 첫 회의에서 부원들의 추

	<p>천으로 동아리 반장을 맡게 되었다. 동아리 반장이라는 자리는 생각보다 책임감이 컸고, 내가 과연 동아리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100일간의 활동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고민도 많았다. 서울 홍보 활동부터 독도 골든 벨까지 모든 활동들은 난생처음으로 해보는 것들이었고, 쉽지만은 않았지만 모두가 불평 없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도 이제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지금까지 곁에서 함께해준 한비, 다혜, 남경이, 서현이와 우리를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주신 이재환 선생님까지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짧다면 짧고 길었다면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독도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었고, 활동을 마무리하는 지금 후회는 없다. 이 소감문을 끝으로 '동해랑 독도랑 우리랑' 동아리의 활동은 마무리될 테지만, 독도를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p>
문남경	<p>100일. 처음엔 그저 막막하게 조금은 막연하게 느껴지는 긴 시간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새 뜨거운 태양과 습한 공기를 마주하는 여름이 되었고 100일이라는 시간도 쏜살같이 흘렀다. 100일전쯤 나는 선생님, 네 명의 친구들과 '동해랑 독도랑 우리랑'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다. 시작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설렘과 불안함을 동반한다. '동아리를 만들어 독도에 대해 알아보고 알린다는 것에 대한 설렘과 내가 동아리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공존하는 미묘한 감정으로 동아리 활동에 임했던 것 같다. 우리는 서울의 다양한 곳을 방문하여 독도를 알리기도 하였고 교내에서 벽화그리기나 독도 골든 벨 같은 홍보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우리 동아리가 한 활동이 '완벽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즐거웠다고는 확인할 수 있다. 100일 간의 활동을 통해 100일의 시간 그 너머의 무언가를 배우고 얻을 수 있었다. 아마 우리 동아리 부원 모두가 그럴 것이다. '동해랑 독도랑 우리랑'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동아리를 일구어나간 모두에게 감사했고 수고했다고 전해주고 싶다. 우리의 100일간 동아리 활동은 끝났지만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깨달은 독도에 대한 마음가짐은 계속될 것이다. 아마 나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종종 이 기억을 머금으며 독도에게 인사를 건넬 듯싶다.</p>
장한비	<p>무더운 방학이 끝나가는 무렵, 후기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마저 아직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동해랑 독도랑 우리랑'의 100일간의 활동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다. 하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우리 동아리는 가까이 있는 친구부터 멀게는 지구의 다른 한편의 외국인까지 독도를 함께 느끼고, 그들에게 알리는 수많은 활동을 하였다. 사실 작년에 '독도 바로 알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독도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을 깊게 공부했었던 것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 동아리 활동은 무작정 지식을 머리에 넣으려고 노력했던 그때와는 달리 친한 친구들과 함께 몸을 움직여 크고 작은 활동들을 직접 실행하는 동안 독도를 왜 지켜야하고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몸소 깨닫게 되었다. 아마도 이 깨달음이 이번 활동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p> <p>이제 100일은 지나갔지만 그 감동만큼은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뜨거웠던 2018년의 여름처럼 말이다.</p>

이서현	<p>찌는 듯한 더위와 컷가에 올리는 매미소리가 익숙해질 무렵 '동해랑 독도랑 우리랑' 동아리에서의 100일간의 활동이 끝나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봄이 여름이 되는 동안 우리 동아리에서 진행한 많은 활동들을 되새겨보았다. 독도를 알리기 위한 서울 탐방부터 직접 개최한 독도 골든 벨까지 매 순간이 새로운 경험이었고, 최선을 다해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독도에 대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도 찾아보며 나의 지식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땅 독도가 우리 동아리로 인해 더욱 더 알려진다는 생각으로 활동에 임하다 보니 더위 속에서 독도에게 전하는 메시지 활동을 진행한 것도, 몸에 페인트를 묻혀가며 벽에 독도를 새기는 활동도 끝까지 웃으며 마무리할 수 있었다. 활동을 마무리하는 지금, 그동안 함께한 동아리 부원 채은이, 다혜, 남경이, 한비에게 고마웠다는 말과, 그동안 우리를 이끌어주신 이재환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동해랑 독도랑 우리랑'에서의 활동이 끝난 후에도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활동들에 더불어 우리 땅 독도를 가슴 속에 깊이 새길 것이다.</p>
정다혜	<p>처음 동아리에 가입하고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났던 기억이 난다.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내가 부원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할 텐데' 하는 여러 생각들과 함께 '독도 사랑 실천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선뜻 가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우리가 한 활동들을 되돌아보면서 느낀 점을 쓰고 있으니 길게만 생각했던 100일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다양한 활동을 해가면서 학교에 남겼던 독도에 대한 우리의 흔적들이 마치 학교에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독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다. 독도 벽화 그리기, 독도 골든 벨, 독도 심벌마크 그리기 등 많은 활동들을 했지만 기억에 남는 활동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 독도를 알고, 또 알리기 위한 서울 홍보활동이 아니었나 싶다. 가장 의미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힘들었던 활동이었기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다. 가끔 힘이 들기도 했지만 우리가 했던 일들이 독도를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했다고 생각한 그 때의 기쁨과 뿌듯함이 훨씬 컷기에 더 열심히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p>

## 5. 건의사항

- 독도 체험 발표대회를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 지역별로 많은 학교에서 대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대회 신설